

고1국어  
미래엔

2(1) 어떻게 읽을까 -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다 빈출유형 1

글을 읽기 전, 중, 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내용들을 정확하게 압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글을 읽기 전에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읽기 목적을 확인한다.
- ②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한다.
- ③ 소제목을 통해 전체 내용을 예측해 본다.
- ④ 제목, 사진 등을 훑어보며 질문을 만든다.
- ⑤ 경험 떠올리기 등을 통해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2. 글을 읽는 중 활동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글 속에 숨겨진 내용을 추리한다.
- ② 훑어보면서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으로 만든다.
- ③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들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한다.
- ④ 자신의 읽기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읽고 있는지 점검한다.
- ⑤ 글 내용과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보면서 공감하며 읽는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절망의 시간에 만난 눈물겨운 제자, 황상

① 만남은 만남이다. 누구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맛난 만남을 경험한다. 이 몇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만남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일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만남 앞에서도 길 가던 사람과 소매를 스치듯 그냥 지나쳐 버리고는 자꾸 째 데만 기웃거린다. 물론 모든 만남이 맛난 것은 아니다. 만남이 맛있으려면 그에 걸맞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고, 외손뼉만으로는 소리를 짹 짹 낼 수가 없다.

한 번의 만남으로 삶 자체가 달라지는 맛난 만남, 그런 만남을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다산 정약용과 그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시절 제자인 황상(黃裳)이다. 시골의 학구(學究)에 불과했던 황상이 쓴 문집 《치원유고(扈園遺稿)》를 뒤적일 때마다 나는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몽글해진다.

황상은 열다섯 살 나던 1802년 10월 다산을 처음 만났다. 당시 다산은 강진으로 귀양 와 있었다.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겁이나 문을 쾅쾅 닫아걸고 받아 주려 하지 않아, 그는 하는 수 없이 동네 주막집 방 한 칸을 빌려 기숙하고 있었다.

아둔하고, 딱 막히고, 융통성 없는 제자를 위한 가르침

황상은 강진 고을 아전의 자식이었다. 서울에서 온 훌륭한 선생님이 아전의 아이들 몇을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주막집을 찾았다. 그렇게 며칠을 내쳐 찾아가 쭈뼛쭈뼛 엉거주춤 글을 배웠다. 7일째 되던 날 다산은 수업을 마친 황상을 따로 불러 앉혀 놓고 말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지만 선생님! 저는 머리도 나쁘고, 앞뒤가 꼭 막혔고, 분별력도 모자랍니다. 저도 공부할 수 있

을까요?”

잔뜩 주눅 든 소년에게 다산은 기를 북돋워 준다.

“그럼 할 수 있고말고. 항상 문제는 제가 민첩하다고 생각하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긴단다. 한 번만 보면 척척 외우는 아이들은 그 뜻을 깊이 음미할 줄 모르니 금세 잊고 말지. 제목만 주면 글을 지어 내는 사람들은 똑똑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저도 모르게 경박하고 들뜨게 되는 것이 문제다. 한마디만 던져 주면 금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곱씹지 않으므로 깊이가 없지. 너처럼 둔한 아이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니?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힘들어도 일단 뚫고 나면 웬만해서는 막히지 않는 큰 구멍이 뚫릴 거다. 꼭 막혔다가 뺨 뚫리면 거칠 것이 없겠지. 미웁한 것을 닦고 또 닦으면 마침내 그 광채가 눈부시게 될 것이야.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니? 첫째도 부지런함ियो, 둘째도 부지런함이며, 셋째도 부지런함이 있을 뿐이다. 너는 평생 ‘부지런함’이란 글자를 절대 잊지 말도록 해라. 어떻게 하면 부지런할 수 있을까? 네 마음을 다잡아서 딴 데로 달아나지 않도록 꼭 붙들어 매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황상은 스승의 이 가르침을 평생을 두고 잊지 않았다.

### 아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스승을 모시다

다산은 강진에서 19년에 걸친 긴 귀양살이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다. 1818년 8월 그믐날, 다산은 강진을 떠나면서 제자들과의 작별이 못내 아쉬워 다신계(茶信契)를 결성했다. 그 후로도 제자들은 해마다 힘을 합쳐 차를 따서 서울에 계신 스승에게 부쳐 드리곤 했다. 하지만 스승을 잃은 다산초당(茶山草堂)은 점차 황폐해져 갔던 듯하다. 황상은 스승의 체취가 못 견디게 그리우면 문득 다산초당을 찾아 한참을 머물다 가곤 했다.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초당의 옛터를 서성이며 스승이 손수 파서 새긴 정석(丁石)이란 두 글자를 어루만지다가, 스승이 일군 대숲과 연못을 보며 지난날의 맑은 풍정을 그리워했다. 그러면서 스승이 계시던 옛터를 백 년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을 서글퍼했다.

그러던 그가 다산이 강진을 떠난 18년 후 1836년 2월 무슨 느낌이 있었던지 두름 땅으로 다산을 찾아보았다. 스승 내외의 회혼례(回婚禮)를 축하드리고, 살아 계실 때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뵈자는 생각이었다.

이때 다산은 병세가 위중해 잔치를 치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열다섯 소년이었던 제자는 신을 눈앞에 둔 중늙은이가 되어 죽음을 앞둔 스승께 절을 올렸다. 곁에서 며칠 머물며 옛날이야기를 나누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아뢰었을 때, 다산은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그의 마디 굵은 손을 붙들고 작별을 아쉬워했다. 그냥 보내기 안타깝다며 접부채와 운서(韻書), 피리와 먹을 선물로 주었다. 스승과 제자가 헤어지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그저 가슴이 먹먹해져 온다.

그렇게 헤어진 뒤 며칠이 안 되어 다산은 세상을 떠났다. 황상은 도중에 스승의 부고를 듣고, 그 길로 되돌아와 스승의 영전에 곡을 하고 상복을 입은 채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 정황계를 맺은 뜻

황상은 스승의 10주기를 맞아 다시 두름을 찾았다. 다산의 아들 정학연(丁學淵)은 10년 만에 기별도 없이 불쑥 나타난 황상을 보고 신을 거꾸로 신고 마당으로 뛰어 내려왔다. 황상은 이제 예수를 눈앞에 둔 늙은이었다. 꼬박 18일을 걸어와 스승의 묘 앞에 섰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부르튼 발을 보고 학연은 아버지 제자의 손을 붙들고 감격해 울었다. 그의 손에는 그 옛날 스승이 주었던 부채가 들려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그리고 제자의 두터운 뜻이 고마워, 늙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부채 위에 시를 써 주었다. 그러고는 정 씨와 황 씨 두 집안간에 계를 맺어, 이제부터 자손 대대로 오늘의 이 아름다운 만남을 기억할 것을 다짐했다. 그 <정황계안(丁黃契案)>은 황상의 문집에 실려 있다. 황상과 정학연, 정학유 형제의 아들과 손자의 이름과 자, 생년월일을 차례로 적은 뒤, 끝에다 이렇게 썼다.

이것은 우리 두 집안 노인의 성명과 자손의 이름을 적은 것이다. 정학연은 침침한 눈으로 천 리

면 길에 써서 보낸다. 두 집안의 후손들은 대대로 신의를 맺고 우의를 다져갈진저. 계를 맺은 문서를 제군들에게 돌리노니 삼가 잃어버리지 말라.

이 해가 1848년이니 이때 정학연은 예순여섯, 황상은 예순하나였다. 그 옛날 더벅머리 소년에게 던져 준, 오로지 부지런하면 된다던 스승의 따스한 가르침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삶을 바꾼 만남’

3. 윗글을 읽기 전, 읽는 중에 사용한 읽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읽기 전에 읽기 목적을 확인하며 어떻게 읽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 ② 읽기 전에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제목과 관련된 나의 배경지식을 떠올려 보았다.
- ③ 읽는 중에 숨겨진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새로 알게 된 내용의 활용 방안을 생각하였다.
- ④ 읽는 중에 ‘학구’처럼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면서 내용을 이해하였다.
- ⑤ 읽는 중에 정약용과 황상의 대화 내용 장면을 상상하며 글을 읽어 보았다.

4. 윗글을 읽고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에 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을 읽기 전에 ‘절망의 시간에 만난 눈물겨운 제자, 황상’이라는 소제목을 보고 정약용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측해 보았다.
- ②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사전을 찾아보았다.
- ③ 글을 읽은 후에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본다.
- ④ 글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정리하고 어려운 표현은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하는 활동을 해 본다.
- ⑤ 글을 읽는 중에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글 읽기 전에 질문거리를 많이 만들어 두어야 한다.

5. <보기>와 같이 ㉠을 이해하였을 때, 읽기 중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맛난 만남’은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만남을 의미하는구나. 즉, 삶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만남이라는 거지.

- ① 공감하며 읽기
- ② 숨겨진 의미 추론하기
- ③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하기
- ④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기
- ⑤ 모르는 단어 국어사전 찾아가며 읽기

6. 윗글의 읽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을 때, 적절한 사람만을 고른 것은?

읽기 전	갑 : 소제목을 먼저 살펴본 다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봤어. 을 : ‘맛난 만남’이란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만남을 의미하는 것 같아.
읽는 중	병 : 나는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쓰기 위해 이 글을 읽기로 했어.
읽은 후	정 : 황상이 어떻게 다산의 제자가 되었는지 궁금해졌어. 무 : 보고서를 쓸 때 바람직한 제자의 모습이 잘 드러난 사례로 사용하면 좋겠어.

- ① 갑, 을
- ② 갑, 무
- ③ 을, 병
- ④ 갑, 병, 무
- ⑤ 병, 정, 무

7. 윗글과 같은 글을 읽을 때 읽는 중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질문을 만들고 이에 대한 답을 찾으며 읽기
- ② 숨겨진 의미나 글쓴이의 의도 추론하며 읽기
- ③ 새롭게 알게 된 내용에 대한 활용 방안 생각해 보기
- ④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비판하기
- ⑤ 어려운 개념이나 생소한 표현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하기

8. 윗글의 읽기 활동 중, 다음과 같은 목적에 대해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다산 정약용의 일대기를 조사해 봐야지.

- ① 황상은 어떻게 다산의 제자가 되었을까?
- ② '삶을 바꾼 만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 ③ 내가 다산이라면 황상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었을까?
- ④ 다산 정약용이 강진으로 귀양을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 ⑤ '절망의 시간에 만난 눈물겨운 제자'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9. 다음과 같이 글의 의미를 이해하며 읽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힘들어도 ~ 큰 구멍이 뚫릴게다.'라는 다산의 말은 그 과정은 어렵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큰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

- ①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하기
- ② 예측했거나 질문했던 내용을 확인하며 읽기
- ③ 숨겨진 의미나 글쓴이의 의도 추론하며 읽기
- ④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비판하기
- ⑤ 글의 구조, 장면, 절차, 이미지 등을 머릿속에 그리며 읽기

10. 윗글을 읽기 전에 해야 할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험 떠올리기 등을 통해 배경지식을 활성화해 본다.
- ② 글에서 새로 알게 된 내용의 활용방안을 생각해 본다.
- ③ 자신의 말로 바꾸어 모르는 단어의 뜻을 추측해 본다.
- ④ 읽기 목적을 확인하고 속독을 통해 질문의 답을 찾아본다.
- ⑤ 읽을 글의 제목과 소제목을 훑어보고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해 본다.

11. 다음 중 읽기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읽기 전에 읽기 목적을 확인하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 ② 읽기 전에 제목, 소제목 등을 훑어보며 내용을 예측하고 질문을 만든다.
- ③ 책을 읽으면서 글의 구조, 장면, 절차, 이미지 등을 머릿속에 그리며 읽는다.
- ④ 책을 읽으면서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 ⑤ 책을 읽은 후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 방안을 생각해본다.

12. 윗글을 읽을 때 읽는 중 활동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 숨겨진 의미를 추론한다.
- ㄴ :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한다.
- ㄷ : 읽기의 목적을 확인하고 통독한다.
- ㄹ : 글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한다.
- ㅁ : 새로 알게 된 내용의 활용방안을 생각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ㅁ                ⑤ ㄴ, ㄷ, ㄹ, ㅁ

## 최다 빈출유형 2

내용 일치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단원에 수록된 전기문과 설명문의 내용을 반복해서 정독하여서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절망의 시간에 만난 눈물겨운 제자, 황상

(가) 만남은 만남이다. 누구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만남 만남을 경험한다. 이 몇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만남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일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만남 앞에서도 길 가던 사람과 소매를 스치듯 그냥 지나쳐 버리고는 자꾸 딴 데만 기웃거린다. 물론 모든 만남이 만남 것은 아니다. 만남이 맛있으려면 그에 걸맞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고, 외손뼉만으로는 소리를 짹 짹 낼 수가 없다.

(나) 황상은 열다섯 살 나던 1802년 10월 다산을 처음 만났다. 당시 다산은 강진으로 귀양 와 있었다.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겁이 나 문을 퐁퐁 닫아걸고 받아 주려 하지 않아, 그는 하는 수 없이 동네 주막집 방 한 칸을 빌려 기식하고 있었다.

( ㉠ )

(다) 황상은 강진 고을 아전의 자식이었다. 서울에서 온 훌륭한 선생님이 아전의 아이들 몇을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주막집을 찾았다. 그렇게 며칠을 내쳐 찾아가 쭈뼛쭈뼛 엉거주춤 글을 배웠다. 7일째 되던 날 다산은 수업을 마친 황상을 따로 불러 앉혀 놓고 말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지만 선생님! 저는 머리도 나쁘고, 앞뒤가 꼭 막혔고, 분별력도 모자랍니다. 저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중략) 너처럼 둔한 아이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니?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힘들어도 일단 뚫고 나면 웬만해서는 막히지 않는 큰 구멍이 뚫릴 거다. 꼭 막혔다가 뺨뚫리면 거칠 것이 없겠지.

(라) 황상은 스승의 10주기를 맞아 다시 두름을

찾았다. 다산의 아들 정학연(丁學淵)은 10년 만에 기별도 없이 불쑥 나타난 황상을 보고 신을 거꾸로 신고 마당으로 뛰어 내려왔다. 황상은 이제 예순을 눈앞에 둔 늙은이었다. 꼬박 18일을 걸어와 스승의 묘 앞에 섰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부르튼 발을 보고 ㉡ 학연은 아버지 제자의 손을 붙들고 감격해 울었다. 그의 손에는 그 옛날 스승이 주었던 부채가 들려 있었다.

13.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모든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 ② 황상은 스스로 다산을 찾아가 글을 배웠다.
- ③ 다산과 처음 만났을 때 황상은 열다섯 살이었다.
- ④ 다산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황상을 만났다.
- ⑤ 귀양 온 다산을 받아주는 사람이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다.

14. ㉠은 (다)의 내용에 해당되는 소제목이 있는 부분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둔하고 융통성 없는 제자를 위한 가르침
- ② 우둔하고 분별력 없는 황상
- ③ 황상, 다산의 가르침으로 겸손함을 배우다.
- ④ 아전의 자식인 황상, 성공의 길을 걷다.
- ⑤ 다산의 용기, 황상을 만남으로 빛을 발하다.

15. (라)에서 학연이 ㉡과 같이 행동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상이 가져온 부채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 ② 황상의 늙은 모습에 놀랐기 때문이다.
- ③ 황상이 기별도 없이 나타나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 ④ 황상이 예상보다 일찍 도착하였기 때문이다.
- ⑤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 준 것이 고마웠기 때문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절망의 시간에 만난 눈물겨운 제자, 황상**

만남은 만남이다. 누구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맛난 만남을 경험한다. 이 몇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만남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일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만남 앞에서도 길 가던 사람과 소매를 스치듯 그냥 지나쳐 버리고는 자꾸만 데만 기웃거린다. 물론 모든 만남이 맛난 것은 아니다. 만남이 맛있으려면 그에 걸맞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고, 외손백만으로는 소리를 짹짹 낼 수가 없다.

한 번의 만남으로 삶 자체가 달라지는 맛난 만남, 그런 만남을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다산 정약용과 그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시절 제자인 황상(黃裳)이다. 시골의 학구(學究)에 불과했던 황상이 쓴 문집 《치원유고(扈園遺稿)》를 뒤적일 때마다 나는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뭉클해진다.

황상은 열다섯 살 나던 1802년 10월 다산을 처음 만났다. 당시 다산은 강진으로 귀양 와 있었다.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겁이나 문을 꽂꽂 닫아걸고 받아 주려 하지 않아, 그는 하는 수 없이 동네 주막집 방 한 칸을 빌려 기식하고 있었다.

**아둔하고, 딱 막히고, 융통성 없는 제자를 위한 가르침**

황상은 강진 고을 아전의 자식이었다. 서울에서 온 훌륭한 선생님이 아전의 아이들 몇을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주막집을 찾았다. 그렇게 며칠을 내쳐 찾아가 쭈뼛쭈뼛 엉거주춤 글을 배웠다. 7일째 되던 날 다산은 수업을 마친 황상을 따로 불러 앉혀 놓고 말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지만 선생님! 저는 머리도 나쁘고, 앞뒤가 꼭 막혔고, 분별력도 모자랍니다. 저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잔뜩 주눅 든 소년에게 다산은 기를 북돋워 준다.

“그럼 할 수 있고말고. 항상 문제는 제가 민첩하다고 생각하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긴단

다. 한 번만 보면 척척 외우는 아이들은 그 뜻을 깊이 음미할 줄 모르니 금세 잊고 말지. 제목만 주면 글을 지어 내는 사람들은 똑똑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저도 모르게 경박하고 들뜨게 되는 것이 문제다. 한마디만 던져 주면 금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곱씹지 않으므로 깊이가 없지. 너처럼 둔한 아이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니?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힘들어도 일단 뚫고 나면 웬만해서는 막히지 않는 큰 구멍이 뚫릴 거다. 꼭 막혔다가 뺨 뚫리면 거칠 것이 없겠지. 미웁한 것을 닦고 또 닦으면 마침내 그 광채가 눈부시게 될 것이야.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니? 첫째도 부지런함이에요, 둘째도 부지런함이며, 셋째도 부지런함이 있을 뿐이다. 너는 평생 ‘부지런함’이란 글자를 절대 잊지 말도록 해라. 어떻게 하면 부지런할 수 있을까? 네 마음을 다잡아서 딱 데로 달아나지 않도록 꼭 붙들어 매아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황상은 스승의 이 가르침을 평생을 두고 잊지 않았다.

**아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스승을 모시다**

다산은 강진에서 19년에 걸친 긴 귀양살이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다. 1818년 8월 그믐날, 다산은 강진을 떠나면서 제자들과의 작별이 못내 아쉬워 다신계(茶信契)를 걸성했다. 그 후로도 제자들은 해마다 힘을 합쳐 차를 따서 서울에 계신 스승에게 부쳐 드리곤 했다. 하지만 스승을 잃은 다산초당(茶山草堂)은 점차 황폐해져 갔던 듯하다. 황상은 스승의 체취가 못 견디게 그리우면 문득 다산초당을 찾아 한참을 머물다 가곤 했다.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초당의 옛터를 서성이며 스승이 손수 파서 새긴 정석(丁石)이란 두 글자를 어루만지다가, 스승이 일군 대숲과 연못을 보며 지난날의 맑은 풍정을 그리워했다. 그러면서 스승이 계시던 옛터를 백 년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을 서글퍼했다.

그러던 그가 다산이 강진을 떠난 18년 후 1836년 2월 무슨 느낌이 있었던지 두릉 땅으로 다산을 찾아뵈었다. 스승 내외의 회혼례(回婚禮)를 축하드리고, 살아 계실 때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뵈자는 생각이었다.

이때 다산은 병세가 위중해 잔치를 치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열다섯 소년이었던 제자는 신을 눈앞에 둔 중늙은이가 되어 죽음을 앞둔 스승께 절을 올렸다. 곁에서 며칠 머물며 옛날이야기를 나누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아뢰었을 때, 다산은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그의 마디 굵은 손을 붙들고 작별을 아쉬워했다. 그냥 보내기 안타깝다며 접부채와 운서(韻書), 피리와 먹을 선물로 주었다. 스승과 제자가 헤어지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그저 가슴이 먹먹해져 온다.

그렇게 헤어진 뒤 며칠이 안 되어 다산은 세상을 떠났다. 황상은 도중에 스승의 부고를 듣고, 그 길로 되돌아와 스승의 영전에 곡을 하고 상복을 입은 채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정황계를 맺은 뜻**

황상은 스승의 10주기를 맞아 다시 두릉을 찾았다. 다산의 아들 정학연(丁學淵)은 10년 만에 기별도 없이 불쑥 나타난 황상을 보고 신을 거꾸로 신고 마당으로 뛰어 내려왔다. 황상은 이제 예수를 눈앞에 둔 늙은이었다. 꼬박 18일을 걸어와 스승의 묘 앞에 섰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부르튼 발을 보고 학연은 아버지 제자의 손을 붙들고 감격해 울었다. 그의 손에는 그 옛날 스승이 주었던 부채가 들려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그림고 제자의 두터운 뜻이 고마워, 늙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부채 위에 시를 써 주었다. 그러고는 정 씨와 황 씨 두 집안간에 계를 맺어, 이제부터 자손 대대로 오늘의 이 아름다운 만남을 기억할 것을 다짐했다. 그 <정황계안(丁黃契案)>은 황상의 문집에 실려 있다. 황상과 정학연, 정학유 형제의 아들과 손자의 이름과 자, 생년월일을 차례로 적은 뒤, 끝에다 이렇게 썼다.

이것은 우리 두 집안 노인의 성명과 자손의 이름을 적은 것이다. 정학연은 침침한 눈으로 천 리 먼 길에 써서 보낸다. 두 집안의 후손들은 대대로 신의를 맺고 우의를 다져갈진저. 계를 맺은 문서를 제군들에게 돌리노니 삼가 잃어버리지 말라.

이 해가 1848년이니 이때 정학연은 예순여섯,

황상은 예순하나였다. 그 옛날 더벅머리 소년에게 던져 준, 오로지 부지런하면 된다던 스승의 따스한 가르침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 '삶을 바꾼 만남'

1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황상은 다산에게 스스로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었다.
  - ② 다산은 유배 당시 동네 주막집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 ③ 황상은 다산과 정황계를 맺어 두 집안 간의 우의를 다졌다.
  - ④ 다산은 황상이 젊었을 때 용기를 북돋워 줌으로써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
  - ⑤ 다산은 처음 강진으로 유배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의 외면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1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제자들은 떨어져 있는 스승에게 예를 다하였다.
  - ② 정학연은 기별 없이 찾아온 황상을 반가워하였다.
  - ③ 황상은 스승의 죽음을 슬퍼하며 상복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다.
  - ④ 다산은 늙어버린 제자를 불쌍히 여겨 피리와 먹을 선물로 주었다.
  - ⑤ 황상은 다산이 강진을 떠난 뒤 스승에 대한 그리움과 죄송함으로 괴로워했다.

18. 윗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인 것은 아니다.
  - ② 정약용은 강진으로 귀양 갈 때 제자 황상을 데리고 갔다.
  - ③ 정약용은 글공부를 기피하는 황상을 따로 불러 훈계하였다.
  - ④ 제목만 주면 글을 지어내는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할 수 없다.
  - ⑤ 정약용은 긴 귀양살이에 지쳐 다시는 귀양을 가지 않기 위해 다신계(茶信契)를 결성했다.

## 정답 및 해설

### 1. <답> ②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읽은 후 활동에 해당한다.

①, ③, ④, ⑤ 모두 읽기 전 활동에 해당한다.

### 2. <답> ②

훑어보면서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으로 만드는 것은 읽기 전 활동에 해당한다.

①, ③, ④, ⑤ 모두 읽는 중 활동에 해당한다.

### 3. <답> ③

새로 알게 된 내용의 활용 방안을 생각하는 것은 읽은 후의 활동에 해당한다.

①, ② 적절한 읽기 전 활동에 해당한다.

④, ⑤ 적절한 읽는 중 활동에 해당한다.

### 4. <답> ⑤

글을 읽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① 내용을 예측하는 올바른 읽기 전 활동이다.

②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아가면 읽는 올바른 읽는 중 활동이다.

③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올바른 읽는 중 활동이다.

④ 올바른 읽은 후 활동이다.

### 5. <답> ③

<보기>에서는 글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하는 것이다.

① <보기>의 내용은 공감하며 읽기와는 관련이 없다.

② <보기>의 내용은 숨겨진 의미 추론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④ <보기>의 내용은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⑤ <보기>의 내용은 모르는 단어 국어사전 찾아가며 읽는 것과 관련이 없다.

### 6. <답> ②

갑 : 소제목을 먼저 살펴본 다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봤어. = 제목과 소제목 등을 보고 질문을 만드는 것은 읽기 전 활동이다.

무 : 보고서를 쓸 때 바람직한 제자의 모습이 잘 드러난 사례로 사용하면 좋겠어. = 글의 내용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읽은 후 활동에 해당한다.

을 : '맛난 만남'이란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만남을 의미하는 것 같아. =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하는 것으로 읽는 중 활동에 해당한다.

병 : 나는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쓰기 위해 이 글을 읽기로 했어. = 읽기 목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읽기 전 활동에 해당한다.

정 : 황상이 어떻게 다산의 제가 되었는지 궁금해졌어. = 글의 내용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을 떠올리는 것으로 읽는 중 활동에 해당한다.

### 7. <답> ③

새롭게 알게 된 내용에 대한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읽은 후 활동에 해당한다.

①, ②, ④, ⑤ 모두 읽는 중 단계에 적절한 활동이다.

### 8. <답> ④

다산 정약용이 강진으로 귀양을 가게 된 이유는 정약의 일대기와 관련이 있는 질문이다.

①, ②, ③, ⑤ 해당 질문들은 정약용의 일대기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 9. <답> ①

해당 내용은 글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②, ③, ④, ⑤ 모두 적절한 읽기 방식이지만, 제시된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 10. <답> ①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기 등을 통해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것은 올바른 읽기 전 활동이다.

② 글에서 새로 알게 된 내용의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읽은 후의 활동이다.



- ③ 자신의 말로 바꾸어 모르는 단어의 뜻을 추측해 보는 것은 읽는 중 활동이다.
- ④ 읽기 목적을 확인하는 것은 읽기 전 활동이지만, 속독을 통해 질문의 답을 찾아보는 것은 읽기 전 활동에 어울리지 않는다.
- ⑤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해 보는 것은 읽기 전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답> ④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읽은 후 활동에 해당한다.

- ①, ② 적절한 읽기 전 활동이다.
- ③ 적절한 읽는 중 활동이다.
- ⑤ 적절한 읽은 후 활동이다.

12. <답> ③

ㄱ : 글의 숨겨진 의미와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며 읽는 것은 읽는 중 활동에 해당한다.

ㄴ :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며 읽는 것은 읽는 중 활동에 해당한다.

ㄷ : 글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하는 것은 읽는 중 활동에 해당한다.

ㄹ : 읽기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은 읽기 전 활동에 해당한다.

ㅁ : 새로 알게 된 내용의 활용방안을 생각하는 것은 읽은 후 활동에 해당한다.

13. <답> ①

이 글에서 모든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② '황상은 강진 고을 아전의 자식이었다. 서울에서 온 훌륭한 선생님이 아전의 아이들 몇을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주막집을 찾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황상은 열다섯 살 나던 1802년 10월 다산을 처음 만났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황상은 열다섯 살 나던 1802년 10월 다산을 처음 만났다. 당시 다산은 강진으로 귀양 와 있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겁이나 문을 퐁퐁 닫아걸고 받아 주려 하지 않아, 그

는 하는 수 없이 동네 주막집 방 한 칸을 빌려 기식하고 있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답> ①

'너처럼 둔한 아이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니?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힘들어도 일단 뚫고 나면 웬만해서는 막히지 않는 큰 구멍이 뚫릴 거다.'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금은 아둔하고 융통성 없는 제자인 황상에게 스승인 다산이 가르침을 주는 부분이므로, '아둔하고 융통성 없는 제자를 위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②, ③, ④, ⑤ 모두 해당 단락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15. <답> ⑤

㉠에서 학연은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 준 황상에 대한 고마움으로 인해 눈물을 흘린 것이다.

①, ②, ③, ④ 모두 해당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16. <답> ③

정황계안(丁黃契案)을 맺은 것은 다산의 아들과 황 씨 집안이 맺은 것이다.

- ① '서울에서 온 훌륭한 선생님이 아전의 아이들 몇을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주막집을 찾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그는 하는 수 없이 동네 주막집 방 한 칸을 빌려 기식하고 있었다. ~ 황상은 강진 고을 아전의 자식이었다. 서울에서 온 훌륭한 선생님이 아전의 아이들 몇을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주막집을 찾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황상은 강진에 유배를 온 다산에게 가르침을 받아 용기를 얻었고 이로 인해 삶이 변화하였다.
- ⑤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겁이나 문을 퐁퐁 닫아걸고 받아 주려 하지 않아, 그는 하는 수 없이 동네 주막집 방 한 칸을 빌려 기식하고 있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답> ④

다산은 늙어버린 제자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